

HYUNDAI E&C TODAY

Vol.338
우리는
현대건설
이다

http://news.hdec.kr
2017 / 07 / 28 / Friday

발행인 정수현 / 편집인 한성호 / 발행처 현대건설 홍보실 / 주소 서울시 중로구 을곡로 75 현대빌딩 / 대표전화 1577-7755 / 신고번호 중로 라00049

〈사보신문〉에서는 테마로 대표 프로젝트를 살펴보는 “우리는 현대건설이다”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현대건설의 이름으로 완성해오 자랑스러운 역할을 통해 도전 DNA를 일깨우고 강인한 추진력으로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산·시화·새만금으로 여의도 240배
싱가포르 국토 6% 확장

Dream of limitless possibility in the open sea

Reclamation projects are considered as one of Hyundai E&C's most salient business areas in which the company's potential has been well demonstrated by making something out of nothing. Above all things, the Seosan land reclamation project (1984) is attributed to a strong belief of the late honorary chairman Chung Ju-young that land is the most important legacy to be passed on to generations to come. Moreover, Korea's primary builder has shaped the landscape of the west coast of the country by successfully conducting large-scale national projects such as Sihwa district

development (1996) and Saemangeum reclamation (2006).

Armed with extensive experience in reclamation, Hyundai E&C turned its eyes to the overseas market. In particular, Singapore, a densely populated country like Korea, welcomed the construction knowhow accumulated by the company. Since the builder entered the Singaporean market with the aim to implement the Pulau Tekong reclamation project in 1981, it has taken on major marine infrastructure projects in the city state, resulting in expanding the country by six percent.

망망대해에 펼친 영토 확장의 꿈

간척사업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해 온 현대건설의 저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업 분야다. 대형 폐유조선으로 조수를 막아 647m의 방조제를 완성한 서산간척지(1984)는 ‘땅은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라는故 정주영 명예회장의 강한 신념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현대건설은 서산 간척사업 외에도 시화지구 개발사업(1996), 새만금 간척사업(2006)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서해안 지형을 바꿔놓았다. 현대건설이 이룬 간척사업으로 새롭게 확장한 국토는 700㎢.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가인 바티칸시국의 1600배 규모다.

이어졌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높은 인구밀도로 고심 중이던 싱가포르에 현대건설의 시공 노하우는 반가운 대상이 아닐 수 없었다. 현대건설은 1981년 플라우테콩 매립공사(1984)로 싱가포르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창이 카페리 터미널(1989), 브라니 컨테이너터미널(1994), 파시르판장 컨테이너터미널 2단계(2002), 주룽 4단계 및 트라스뷰 확장매립(2010) 등 주요 해양 인프라 공사를 도맡아 시공하며 싱가포르 국토의 6%를 확장했다. 현대건설의 인류의 터전을 넓히기 위한 위대한 도전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지구촌 곳곳의 삶을 풍요롭게 변화시키고 있다.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다져진 현대건설의 매립공사는 태평양과 인도양까지



싱가포르 파시르판장 컨테이너터미널 2단계 2002



서산 간척사업 1984



서산 간척사업 1984



시화지구 개발사업 1996



새만금 간척사업 2006

Hyundai E&C consortium awarded the Golden Sunset Bridge project

This year's biggest project conducted under alternative project delivery methods

Hyundai E&C-led consortium has been awarded an order to build the Golden Sunset Bridge to be located in Korea's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and the 1-5 Life-Zone Ring Expressway.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project which is considered as this year's largest construction project conducted under alternative project delivery methods.

Our company has received the deal worth about 452.3 billion won, beating local competitors. To obtain the project, Hyundai E&C established a consortium with Daewoo E&C, Gyeryong Construction Industrial, Hoban

Construction, Kumho E&C, Kumsung Baekjoe Construction, Dowon E&C and Taewon Construction. The largest share of the project (34 percent) will go to Hyundai E&C.

The project is designed to build the 5.43-kilometer expressway with six lanes in the areas of Geumnan and Yeondong in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which includes the construction of the 0.93-kilometer bridge. Our company is planning to complete the detailed design by November this year and begin the construction in December. The construction will take 46 months to complete.



"Hyundai E&C's design and technology capabilities garnered recognition once again by receiving the project known as this year's single largest construction project," an official of Hyundai E&C said. "Hyundai E&C plans to focus more on technology-intensive, high-value-added businesses in the future."

그룹사 소식

현대자동차, '쏘나타 뉴 라이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출시

현대자동차는 쏘나타(LF)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쏘나타 뉴 라이즈(New Rise)'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7월 18일부터 시판 중이다.

'쏘나타 뉴 라이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지난 3월 출시 후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쏘나타 뉴 라이즈의 ▶혁신적인 디자인과 ▶첨단 안전·편의 사양을 계승하고 ▶배터리 평생보장 서비스 실시 등 강화된 상품성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쏘나타 뉴 라이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별도의 외부 충전 시스템을 함께 적용해 전기차의 단거리 경제성과 하이브리드카의 긴 항속거리를 모두 갖춘 차세대 친환경차다. 현대자동차는 이번 모델 출시로 2.0 가솔린, 1.7 디젤, 1.6/2.0 터보, 하이브리드 등 쏘나타 뉴 라이즈 엔진 풀 라인업을 완성해 고객의 선택폭을 넓혔다는 평을 받고 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 '행정중심복합도시 금빛노을교' 품다

'4523억' 을 최대 규모 기술형 입찰 수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올해 최대 규모의 기술형 입찰로 기대를 모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금빛노을교 및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 외곽순환도로 건설공사'를 수주했다.

7월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 본사에서 열린 설계심의 결과 우리 회사가 경쟁사를 제치고 4523억원 규모의 공사를 따냈다. 우리 회사는 34%의 지분을 갖고 대우건설(13%), 계룡건설산업

(10%), 호반건설(9%), 금호산업(7%), 금성백조주택(7%), 도원엔씨(5%), 태원건설산업(5%) 등과 컨소시엄을 꾸렸다.

이 프로젝트는 세종시 금남면 집현리, 연동면 용호리 일원에 총 연장 5.43km, 왕복 6차로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공사다. 0.93km의 교량도 포함돼 있다. 올 11월 까지 실시설계를 마친 뒤 12월에 착공할 예정이다. 준공일은 착공일로부터 46개

월이다.

우리 회사 관계자는 "단일 공사로는 올 최대 규모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금빛노을교 및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 건설공사'의 수주로 현대건설의 설계·기술력을 다시금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단순 도급공사에서 벗어나 기술력 중심의 고부가가치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 금빛노을교 및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 건설공사'는 LH가 첫 도입한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이 적용됐다. 가격이 확정된 상황에서 입찰에 참여한 컨소시엄의 설계만을 심의해 당락을 좌우하는 방식이다. LH는 경쟁 과열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3월 '페어플레이 공동 서약식'을 하는 등 공정한 심사에 만전을 기해왔다.

상반기 매출 8조3475억원, 영업이익 5104억원 달성

우리 회사가 7월 27일 올해 상반기 연결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매출 8조3475억원, 영업이익 5104억원, 당기순이익 2594억원을 기록했다.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한 실적이다. 우리 회사는 경쟁력 우위 공종에 집중하는 수주 전략으로 이란 강간 석유화학단지, 싱가포르 매립공사, 힐스테이트 송도 더테라스 등을 수주해 9조3405억원을 기록했다. 수주잔고도 상반기 기준으로 66조7805억원을 유지하고 있어 약 3.5년의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미청구공사는 3조2562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3396억원 대폭 감소해 시장 신뢰를 확대해 가고 있다. 부채비율은 전년 말 대비 14.1%포인트 감소된 130.5%, 유동비율은 전년 말 대비 3.1%포인트 증가한 173.8%를 기록하며 재무구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우리 회사 관계자는 "수익성 개선 및 미청구공사 감소 등으로 안정적인 경영 실적을 달성했다"며 "향후에도 신기술 개발과 공사 수행 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익성 중심의 전략으로 시장 신뢰를 견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최초 기술교류형 해외봉사단 'H CONTECH' 출범

우리 회사의 기술교류형 해외봉사단 'H CONTECH(에이치 컨텍)'이 7월 21일 서울 도곡동 힐스테이트 갤러리에서 제1기 발대식을 하고, 2박3일 일정으로 서산농장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우리 회사 직원 10명과 대학생 35명으로 구성된 1기 봉사단은 오는 8월 14일부터 11박12일의 일정으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사를라에서 첫 봉사활동에 나선다. 봉사단은 ▶*적정기술 아이디어 제안 ▶마을 위생시설 건립 ▶교육봉사 ▶건설기술 및 문화교류 세미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 회사 관계자는 "업계 최초의 기술교류형 봉사활동을 통해 나후 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한 식수 제공은 물론 우리 회사의 기술력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H CONTECH'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H와 건설의 Construction, 기술의 Technology가 결합한 합성어로, 연구개발본부와 협업해 해외 현장 지역에 기술교류 및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차별화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 개발도상국의 문화·주거환경 등을 고려해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기술로 물부족 해소, 빈곤 퇴치와 같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인다.

힐스테이트 송도 더테라스, 평균 35.5대 1 경쟁률로 청약 마감

우리 회사가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R1블록에 선보인 주거용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송도 더테라스'가 전 타입 청약 마감됐다.

7월 20일 오픈한 모델하우스에는 사흘 동안 2만6700여 명이 몰리면서 문전성시를 이뤘다. 수요자들의 관심을 반영하듯 '힐스테이트 송도 더테라스'는 청약 접수 결과, 총 2784실 모집에 9만8904건이 접수되면서 평균 3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힐스테이트 송도 더테라스'는 지하 4층~지상 49층 9개 동, 전용면적 84㎡로 구성됐다. 단지 지상 1~2층에 연면



적 약 1만 8000㎡ 규모(주차장 면적 포함)의 복합 상업시설이 있어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 송도국제도시 최초로 전 실에 테라스(일반테라스 2~49층, 광복테라스 1~3층 별개 등)가 설치돼 공간 활용도 우수하다.

'2017 건설의 날' 은택산업훈장 황희수 상무

'2017 건설의 날' 행사에서 우리 회사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 황희수 현장소장이 은택산업훈장을 받았다.

황 소장은 1984년 플랜트 산업계에 입문해 32년간 사업 입찰부터 설계, 구매, 시공, 시운전, 현장관리까지 플랜트 전 분야를 담당해 온 국내 최고의 플랜트 전문가다. 황 소장은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로 카르발라 정유공장 건설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어 현대건설의 위상뿐 아니라 대한민국 건설사업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7월 2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 70년, 건설의 날' 기념행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조정식 국회 국토위 원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현대카드, 건축·디자인 필름페스티벌 'ADFF: SEOUL' 개최

현대카드가 7월 28일부터 10월 29일까지 서울 이태원에 있는 전시문화공간인 '스토리지'에서 건축·디자인 필름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ADFF(Architecture & Design Film Festival)'는 2009년 미국 뉴욕에서 시작된 세계 최대 규모와 최고 수준의 건축·디자인 영화제로, 예술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관련 영화들을 엄선해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전시를 통해 소개되는 24편의 건축, 디자인 필름은 지하 2층과 3층에 설치된 총 4개의 상영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비야케 잉겔스(Bjarke Ingels)의 '빅 타임(Big Time)'과 안도 다다오(Ando Tadao)의 '무에서 영원을 보다' 등 유명 작품들이 대거 포함됐다. 입장권 한 장으로 하루에 상영되는 12편의 필름을 모두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현장·부서 소식

현대건설 기술교육원, 기업대학과정 교육생 모집

현대건설 기술교육원이 2017년 하반기 기업대학과정 교육생을 8월 22일까지 모집한다. 모집과정



은 플랜트배관, 건설BIM, 건설공정관리, 건설기계정비 등 4개 학과(1년 과정)와 플랜트품질, Global HSE, 플랜트시운전 등 3개 학과(6개월 과정)다. 전문가들의 맞춤형 실무교육과 현장 중심의 차별화된 커리큘럼이 특징이다.

지원 자격은 고졸(준필자) 이상의 취업 희망자(내국인에 한함)로 대학(교) 재학생일 경우 기업대학과정 종료 후 졸업이 가능한 자일-금요일 수업이 가능한 자다. 기술교육원 홈페이지(http://edu.hdec.co.kr)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개강은 9월 1일이다. 교육 기간에는 실습재료·중식 제공은 물론 소정의 기술장려금(최대 월 40만원)도 지급한다. 또한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동중 업계 건설사 및 협력업체 등 국내외 취업연계 특전이 주어진다.

입학 상담 및 문의는 현대건설기술교육원 전화(02-2163-0998-9)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Converted railroad offers literary oasis

July 17

In Mapo District, western Seoul, a segment of the old Gyeongui railroad line that once connected North and South Korea has been converted into a cluster of bookstores called the Gyeongui Line Book Street. The tracks of the old railroad have been preserved and are still visible as visitors walk up and down the Book Street. The area is more of a park, and the trees and shrubbery mimic the vegetation that might grow in an abandoned railyard. Along the main street are nine boxy buildings meant to resemble a train, and six of these "train cars" house bookstores. The other three are used as meeting or exhibition spaces.

The Book Street opened last October, and each store is filled with books

from one local publisher specializing in different themes such as travel and literature. The train car with children's books from Bori Publishing is especially popular on the weekends. The travel-themed train car is also popular as more people are planning trips for the summer. The publisher there has set up a wall where visitors can write down the cities and countries they want to go to, and a lucky handful will get a free travel guide for the travel destination of their dreams. One train car specializes in e-books, and another on art is in the process of moving in a new publisher. "Mapo District is where the most publishing companies are registered," said Yoo Kyung-sik, a public relations manager for the Book Street.

To make the street more of a gathering spot for nearby residents, the office that runs the Book Street has organized different lectures and cultural programs for families. It also has an outdoor space that can host concerts. There are festivals slated to happen in

October to celebrate the one-year anniversary of the opening.

Fitting the street's legacy as a railroad, one



wall contains the facade of an old-school train station. Many of the outdoor events with bigger crowds happen here. The paths and trails of the park offer ideal places for biking

and walking, making the Gyeongui Line Book Street an appealing locale not just for bookworms but outdoor enthusiasts as well.

By KOREA JOONGANG DAILY



Virtual reality gives close-up look into past

July 21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brings the past into the future this summer with virtual reality-powered exploration of global landmarks and artifacts for young museum visitors to enjoy.

The museum, together with Google Arts & Culture, organized a pop-up museum for children, allowing them to enjoy cultural artifacts from Korea and landmarks from around the globe

through a number of interactive activities. Putting on the VR headsets, visitors will be able to view details that are too small for the naked eye to see in a painting from the Joseon Dynasty (1392-1910).

The exhibition is divided into four sections. The first section allows children to draw using a 3-D painting application that allows users to draw on a virtual canvas. There's also a section where visitors can zoom in and

out of images, such as the portrait of Lee Ha-eung, the father of Gojong. The pop-up museum is part of a project launched by Google Arts & Culture in 70 countries, providing museum visitors with the latest technology including VR, 360 degree cameras and high-definition imaging, so that they can virtually experience museums around the world.

Admission is free and the exhibition will be open until Aug. 27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s Children's Museum.

By KOREA JOONGANG DAILY

Group News

2017 Genesis G90 earns Total Quality Award from Strategic Vision

The 2017 Genesis G90 won a Total Quality Award as the highest quality vehicle in the luxury car segment by car buyers in Strategic Vision's annual Total Quality Impact (TQI) report based on results from its New Vehicle Experience Study (NVES). In addition, the Genesis G90 received the third-highest TQI score in the entire industry. The NVES surveyed over 42,000 new vehicle buyers from July to December 2016 after the first 90 days of ownership. New vehicle buyers rated their vehicles on over 150 different attributes regarding the value and quality of their ownership experience.

The TQI score represents true differences between vehicles, including an evaluation of the vehicle's physical and perceived aspects.

The Genesis G90 redefines the luxury experience. It is a vehicle shaped by consumer-focused values and grounded in performance engineering, innovative technology and premium comfort.



2017 KIA Forte earns Top Safety Pick Plus rating

The Insurance Institute for Highway Safety (IIHS) has awarded its best rating possible, Top Safety Pick Plus (TSP plus), to the 2017 Kia Forte built after March 2017 when equipped with optional front crash prevention and high intensity discharge (HID) headlights with Dynamic Bending Light.

This top safety award came right on the heels of the Forte being named highest-rated compact car in the 2017 J.D. Power Initial Quality Study (IQS), which measures consumer satisfaction and the least number of issues in the first 90 days of own-

ership. To qualify for TSP plus, the IIHS testing parameters require each vehicle to earn "good" ratings in five crashworthiness tests - small overlap front, moderate overlap front, side impact, roof strength and head restraints - as well as an "advanced" or "superior" rating for front crash prevention and an "acceptable" or "good" rating in headlight testing.



10 minute Korean Lessons

Basic



Is there something wrong?

무슨 일 있어요?

Situational context

Michael joins the meeting a little late and he feels the atmosphere is little subdued, so he wants to ask what happened.

Today's dialogue

마이클 영민씨, 분위기가 왜 이래요?
무슨 일 있어요?

Yeong-min ssi,
bunwigiga wae iraeoyo?

musenil isseoyo?
영민 글썽요, 저도 방금 전에 와서
잘 모르겠어요.

geulsseoyo. jeodo banggeum
jeone waseo jal moreugesseoyo.

Michael Yeong-min, Why is the
atmosphere is like this?
Is there something wrong?

Yeong-min I just got here, too.
I don't really know.

One more expression

Usually you can say "무슨 일 있어요?", when the atmosphere is subdued, but you can also use it if there is excitement in the air, such as "어! 오늘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좋아 보여요." (Oh! What's going on today? Your face looks good.)

Intermediate



Something has suddenly come up

갑자기 일이 생겼어요

Situational context

Michael is supposed to watch a movie with Su-mi this evening. However, something has suddenly come up at work, so he has to cancel their plan and wants to express his apology. At this point, he can say "갑자기 일이 생겼어요."

Today's dialogue

마이클 수미씨, 오늘 영화를 못 볼 거 같아요.
미안해요. 회사에 갑자기 일이 생겼어요.

Su-mi ssi, oneul yeonghwareul mot
bol kkeo gatayo.mianhaeyo. hoesa-e
gapjagi iri saeng-gyeosseoyo.

수미 알았어요. 그럼 다음에 봐요.
arasseoyo. geureom da-eume bwayo.

Michael Su-mi, I can't watch the movie today.
I'm sorry. It seems that something has
suddenly comes up at the office.

Su-mi I got it. Let's watch it next time.

One more expre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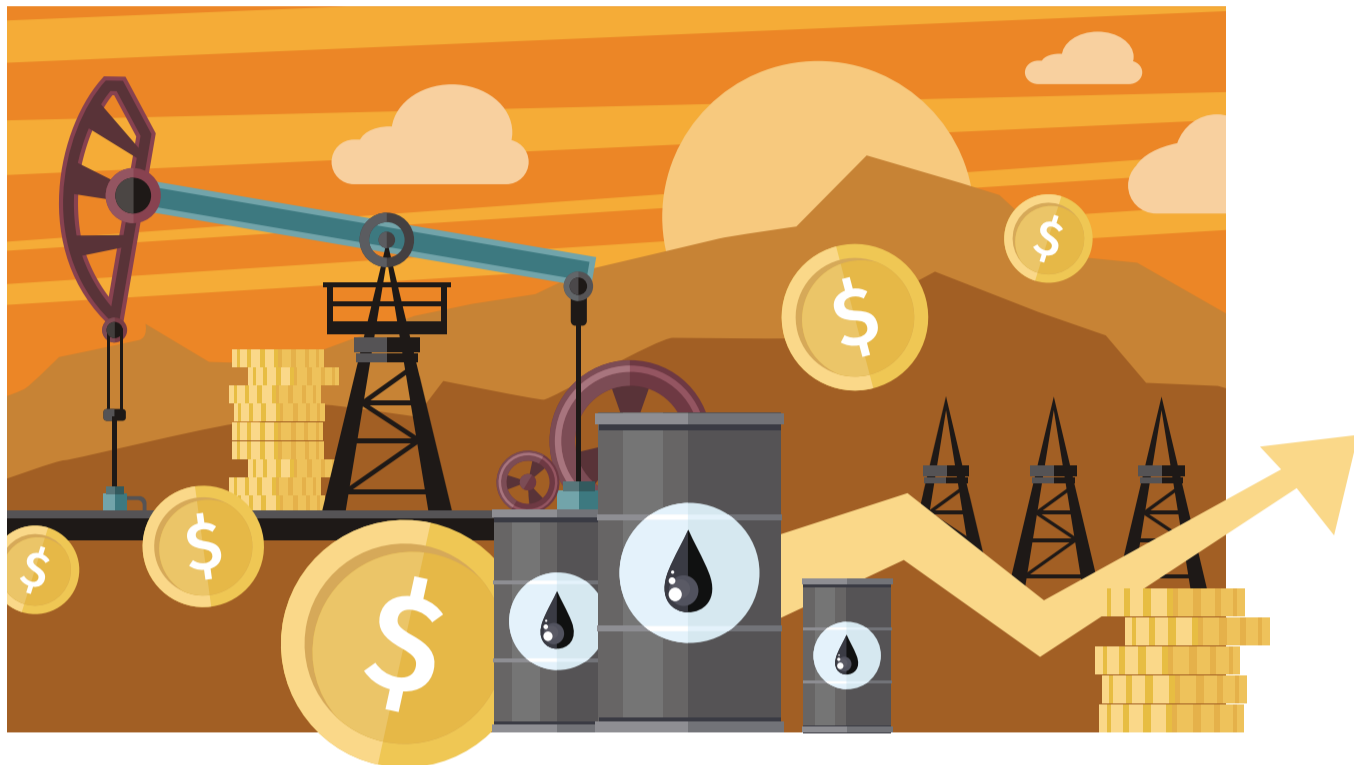
'[Noun]이/가 생기다' means that something has appeared. You can use it, as in "큰돈이 생겼다." (I've gotten a large amount of money) or "여자 친구가 생기다." (I've gotten a girl friend.)

Please scan the QR code for more Korean language learning resources.
Source: 세종 누리 학당(Nuri-King Sejong Institute) www.sejonghakdang.org



최근의 세계 경제를 예측하는 가장 정확한 단어는 '불확실성'과 '패러다임의 변화' 아닐까. 이와 같은 흐름은 원자재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변화의 흐름은 주시해야 한다. 석유와 비철금속, 철강 등 건설업과 밀접히 연관된 원자재 시장의 현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본다. 글=유태원 『원자재 전쟁』 저자

원유, 철강, 비철금속... 원자재에 주목하라



역사적으로 원자재 시장은 새로운 자원의 발견과 함께 자원 확보와 이를 통한 수익 확대 때문에 경쟁이 심화돼 왔다. 과거 에너지 시장은 미국·유럽 등 주요 선진국과 자원부국인 중동 국가, 즉 공급자 위주로 형성됐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자원 민족주의 출현과 함께 자원 블랙홀인 중국·인도 같은 소비국의 비중이 점차 크게 자리 잡으면서 주요 원자재 시장이 변화했다. 자원이 고갈될 것이라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시장 지배력을 잃지 않으려는 금융기관과 투기세력들이 원자재 가격을 부풀려 경제 불황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정된 자원 매장량에 대한 정보는 과학기술 개발과 새로운 매장량의 발견, 그리고 대체 자원의 등장으로 허구임이 밝혀졌다. 이제 원자재 시장은 단순히 자원을 먼저 개발하고 우선 확보하려는 데 머무르지 않는다.

국내 건설사 입장에서 원자재 시장을 본다면 과거 대규모 주택의 착공과 인프라 투자를 결정할 때 높은 원자재 가격은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2015년 전후로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경기 부진과 미국 달러의 양적완화 종료에 따른 자금회수가 본격화되면서 모든 원자재 가격이 역사적 저점 부근까지 하락해 원자재 원가 절감의 효과를 예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물경기 부진으로 이 효과를 누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원자재 시장은 새로운 양상, 즉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고 있다. 저유가의 장기화와 철강 및 비철 채고 증가, 금리 상승에 따른 보관비용 증가 등으로 생산자(공급처)와 소비자(수요처) 간의 팽팽했던 수급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 그렇다면 원유시장, 비철시장, 그리고 철강시장의 주요 현안은 무엇이고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지 살펴보자.

원유시장의 주요 현안 및 전망

2008년 7월에 국제유가(WTI 기준)는 배럴당 145달러까지 역사적 고점을 기록했고, 7년이 지난 2016년 2월에는 배럴당 26달러를 기록했다. 2017년 7월 현재 배럴당 46달러대까지 회복한 상태다(표1).

유가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2008년에서 2009년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급 측면에서 볼 때, 원유는 2008년 상반기까지 불안한 중동 정세와 미국 텍사스주의 허리케인 피해 등으로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부각됐다. 수요 측면에서는 중국 등의 원유 및 휘발유 소비량 증가 전망이 대두되던 시기였다. 특히 원자재 시장에서 막강한 명성을 자랑하던 골드만삭스가 '국제 유가는 배럴당 200달러대까지 상승할 것'이란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에 따른 투기적 심리는 원유 실물의 구매량을 더욱 확대시켰다. 원유의 실질적인 수요는 증가하지 않은 가운데 원유의 선구매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미국 원유 재고량은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월 초까지 40% 이상 급증했

다. 하지만 재고량 증가와 원유 실물 수요 부진, 채고 부담에 대한 우려로 2009년 1월에 다시 배럴당 30달러대 초반까지 하락했다.

최근 유가의 움직임은 2009년 이후와 유사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우선 공급 측면에서 볼 때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점유율 경쟁에 이어 미국까지 뛰어들어 과잉공급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의 원유 채고는 1980년대 이래 최대 수준으로, 미 중서부 정제업체들은 가동을 줄이고 있다. 미국의 경기 호조 전망으로 휘발유 수요 증가를 기대해 2015년부터 생산량을 늘렸지만 정작 소비는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요 측면에서

표1 | 지난 10년간 유가 변동 추이



표2 | 중국 국제금리와 철광석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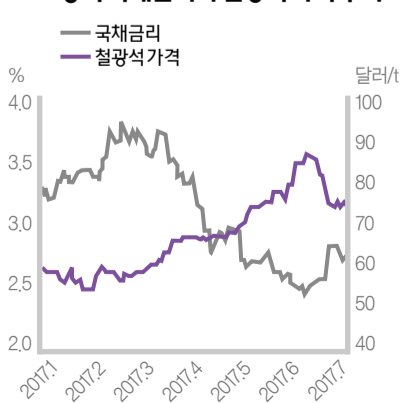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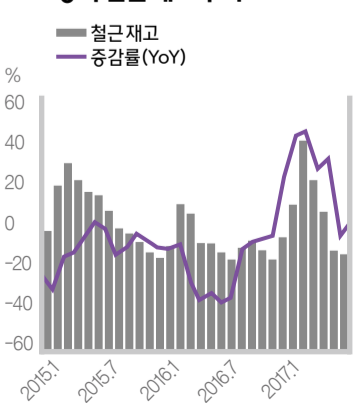


표3 | 중국 철근 채고 추이



볼 때 중국 등 글로벌 경제성장 침체로 원유 수요의 둔화세는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과거와의 큰 차이점은 OPEC(석유수출국기구)이 원유시장에서 마켓메이커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자국의 경제 부흥을 위해 원유시장에 다시 등장한 이란, 저유가로 인한 재정 악화에 시달리는 러시아, 셰일업계 성장에 따라 원유 산유량 조정자의 역할을 할 미국 등 OPEC 및 기타 주요 산유국들 간의 이해상충으로 당분간 생산량 감소 합의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저유가에 따른 주요 국가들의 디플레이션 심화와 글로벌 경기 침체, 투기세력의 원유시장 유출 등으로 2009년과 같은 유가의 급등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반면 정책적 측면에서 올해 말까지 유가의 하락 폭 제한이 전망된다. 이는 ▶글로벌 원유 채고 감소 ▶비OPEC(리비아·나이지리아 등)의 증산 여력 부족 ▶유가 40달러 선 이탈 시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감산 규모 확대 등 추가 대응 카드를 제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사우디는 유가 하락 이후 OPEC 회의를 제안한 바 있으며, 최근 사우디 최대 국영 석유 기업인 아람코의 IPO(기업공개)를 주도하고 있는 '무함마드 빈살만 알사우드'가 사우디 제1 왕위 계승권자로 책봉돼 유가 안정을 위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결국 원유시장은 글로벌 경기 침체 이후 공급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상승세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오일 및 셰일 증산과 함께 전통적 공급 축인 OPEC 감산 합의에 대한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다. 가격의 변동 범위는 소폭 확대될 수 있으나, 원유 수요세는 글로벌 경기회복세에 비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시장의 주요 현안 및 전망

철강은 원유나 비철금속 등의 다른 원자재와 달리 오래 보관하면 녹이스는 질적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동일하더라도 건설업의 경기 따라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 건설업계의 대처 수단이 제한적인 것이다. 철강시장은 지난 2년 동안 건설시장 내 유동성 부족과 부동산 규제 등으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 특히 중국은 경기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산업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중국 내 건설업체에 대한 신용긴축 및 부실업체 정리를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실질 건설투자 집행속도에 따라 재정정책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돼 철강재 수요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서남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일대) 및 동남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잇는 해상 실크로드(일로)를 뜻하는 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중국 내 공황 및 철도 증축 등 기초작업에 1636억위안(약 27조6000억원)을 투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내 서부 지역(내륙)의 고정자산 투자 및 굴착기 내수

판매가 전년 대비 급증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철광석 가격의 상승세는 중국 철강시장 내 유동성 확대와 연관성이 높다. 하반기 이후 중국 내 시중 금리 안정화 등 유동성 여건이 완화된다면 철광석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표2·3).

일대일로는 예전보다 관심은 적어졌으나, 실질적인 투자 수효는 이제부터다. 일대일로는 중국에 국한된 프로젝트가 아닌 국제 인프라 투자로서 이를 시행하는 건설업체의 직간접적 수익 확대와 함께 글로벌 철강업체에 누적된 채고 소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반적인 철강시장은 실물 수요 부진에 따른 구조적 수급 불균형이 유지되고 있다. 또한 사드 보복에 따른 국내 수요산업의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등 글로벌 시장 내 통상 마찰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철강 수요는 전년 대비 크게 확대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철금속시장의 주요 현안 및 전망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 장기화와 경기부진에 따른 비철 수요 둔화로 비철 및 창고업체들의 수익성 확대 경쟁 역시 심화됐다. 이후 투기세력의 비철시장 유입은 실물시장을 왜곡했다. 이어 각국의 규제 강화와 미국의 저금리 기조가 마무리되면서 공급 조정이 진행됐다. 하지만 가격 변동 움직임을 나타냈다. 중국 제조업 경기 반등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따른 인프라 투자 기대감으로 급등세를 나타냈으나, 올해 연초 이후 미국의 부정적인 정치 이슈로 인해 건설업을 포함한 경기 추진 동력은 약화돼 가는 모습이다.

중국은 올해 들어 철도 운송량, 전력 사용량이 크게 오르지 못한 가운데 제조업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휴가 시즌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의 시그널로 가늠되는 자동차 판매 역시 세계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 납과 아연의 경우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비철시장의 대표 품목인 전기동(구리)은 올 하반기 중국의 본격적인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칠레와 페루의 생산 감소 영향,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수출 제한 등으로 상승 압력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구리연구그룹(ICSG)에 따르면 2017년 전기동 광산 생산은 전년 대비 0.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도 실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증가해 중국의 전기동 순수입은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니켈은 상반기에는 필리핀(생산 1위)의 환경오염 문제로 폐광했던 광산의 생산 재개와 함께 인도네시아(생산 2위)의 정광 수출이 허용되면서 하락세였다. 특히 지난 5월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 니켈 소비의 50%를 차지하는 중국으로 수출을 시작하면서 니켈 가격의 하락세는 하반기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알루미늄은 전반적으로 수요가 감소하는 움직임이다. 특히 미국, 유럽 및 일본 등지의 알루미늄 프리미엄이 하락한 가운데 중국 상하이선물거래소(SHFE) 채고는 증가했다.

따스한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이 놀라운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힐스테이트 꿈키움 멘토링 봉사단' (이하 '꿈키움 멘토링 봉사단') 활동을 통해서라면 가능하다. 글=박현희/사진=이슬기, '꿈키움 멘토링 봉사단' 홍보서포터즈 문예진·박은민·정현근

현대건설 사우와 대학생이 함께하는 청소년 멘티의 '꿈키우기' 프로젝트!

힐스테이트 꿈키움 멘토링 봉사단

우리 회사가 국내 건설사 최초로 청소년 대상 교육 장학 활동에 나섰다. '꿈키움 멘토링 봉사단'은 청소년, 대학생, 우리 회사 직원이 3인 1조를 이뤄 청소년의 꿈을 찾을 수 있게 돕는 장기 프로젝트다. 우리 회사 임직원과 건설사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이 멘토로 나서 청소년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9월 발족한 3기 봉사단 60명은 올 7월 28일 애단하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청소년 멘티의 꿈을 응원해 왔다. 우리 회사는 청소년의 장래 희망에 따라 해당 분야 전공 대학생들과 임직원을 선발한 후 총 20개 조를 구성했다. 직원 멘토들은 멘티들이 장래 희망으로 삼고 있는 기능직 공무원, 육군 장교, 토목엔지니어,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기술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섭외해 꿈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대학생 멘토들은 직원 멘토와 멘티들의 교두보 역할을 했으며, 학습 및 생활 지도를 담당했다.



Interview

고등학생 멘티의 꿈에 희망 더하기

멘토 이근주 대리(인프라연구개발실 첨단재료연구팀) & 박민서 대학생(중앙대 토목학과) & **멘티** 박정환(한양공고 2)

Q 지원 계기가 궁금합니다.

멘토 이근주 대리(이하 이 대리) 사회 초년생 때 많은 선배의 도움을 받으며 성장했기에 저 역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품곤 했었어요. 그래서 직원 멘토를 뽑는 면접 자리에서 "정말 하고 싶다!"고 강하게 어필했죠. 그 덕분에 2기에 이어 3기까지 직원 멘토로 활동할 수 있게 됐어요.

멘토 박민서 대학생(이하 박민서) 2학년이 되니까 진로에 대한 고민과 동시에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을 활용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활동은 멘티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저 역시 직원 멘토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지원하게 됐죠.

멘티 박정환 학생(이하 박정환) 진로 선생님께서 경험하면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때마다 문자메시지로 공지해주세요. 이런저런 걱정이 많던 중에 '꿈키움 멘토링'을 알게 돼 친구와 함께 접수했죠.

Q 성공적인 멘토링 활동이 되기 위해 각자 어떤 노력을 했나요?

이 대리 멘티가 우선되어야 하는 활동이라 '정환이가 어떤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많이 던졌어요. 정환이와 친해지기 위해 모바일 메신저 프로필 사진이 바뀔 때마다 관심을 갖고 말을 걸거나, 멘티가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해 연구하

기도 했죠(웃음). **박민서** 멘토링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려면 직원 멘토와 대학생 멘토의 호흡이 중요해요. 이근주 멘토님은 자상한 목소리와 표정으로 저와 고등학생 멘티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셨어요. 저 역시 정환이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개인적인 친분을 쌓아 나갔죠. 정환이보다 한 살 많은 남동생을 두고 있는 터라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었어요.

박정환 두 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민서 형은 처음에 이름만 보고 누나인 줄 알았다고(웃음), 이근주 멘토님과 나이가 차가 많이 나니까 대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두 분 모두 잘생기신 데다 인상도 좋고... 제 꿈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많으셔서 금방 마음을 놓였어요. 지난 시간 동안 두 분은 저에게 최선을 다해주셨고, 제가 두 분에게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좋은 성적밖에 없는 것 같아 열심히 공부했어요.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구요.

Q 꿈키움 멘토링의 세부 프로그램은 각자가 직접 기획한다고요.

박민서 2016년 9월 24일부터 1박2일간 발대식 겸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졌어요. 이때 10개월 동안 어떤 활동을 할지 조별로 계획을 세우죠. 저희 조는 문화 체험·여행·진로 활동이라는 세 가지 콘셉트를 정한 후 세부 계획을 세웠어요. 정환이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분명하게 아는 아이였고, 그 덕분에 계획을 세우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죠.

이 대리 직원 멘토와는 한 달에 1번,

대학생 멘토와는 일주일에 1번 만나기로 돼 있어요. 초반에는 연극 관람, 여자배구 경기 응원, 미술관 투어, 봉사활동 등 문화생활을 많이 했어요. 올 1월에는 비행기를 꼭 한 번 타고 싶다는 정환이의 바람을 이루기 위해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죠. 남은 기간 동안에는 정환이의 장래 희망인 기능직 공무원을 섭외하는 데 매진했어요.

박정환 민서 형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 학습 지도를 해주셨어요. 시험기간에는 수학과 같은 부족한 과목을 알려주고, 평소에는 공무원시험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풀이해줬죠. 진로에 대해서는 이근주 멘토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기능직 공무원님들을 만나 뵈고, 평소 궁금했던 것들을 여쭙볼 수 있었죠. 그 덕분에 공무원이 더욱 되고 싶어졌고,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공부에 매진하고 있어요.

Q 나에게 꿈키움 멘토링이란?

이 대리 택배! 설레고 기다려지니까. 저는 '꿈 전도사'가 되고 싶어요. 100세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남에게 소소한 도움을 주며 살고 싶은 바람이에요.

박민서 기적. 안 될 줄 알았는데 모두가 루었으니까. 대학생 멘토의 중요한 역할이 직원 멘토와 고등학생 멘티의 가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생이 되고, 직장인이 되는 것처럼 인생에도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활동 덕분에 더 좋은 사람, 선한 영



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은 꿈이 생겼어요(웃음).

박정환 양과 같아요. 하면 할수록이 활동의 매력을 알게 되거든요. 한양공고에 입학한 이유는 건설정보학과에서 공무원을 많이 뽑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부모님도 이만한 직업이 없다며 강조하셨지만, 저는 떠밀려 입학했을 뿐 목표의식은 없었죠. 하지만 꿈키움 멘토링 활동을 하며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됐고, 왜 해야 하는지 동기가 생겼어요. 훌륭한 어른, 멋진 공무원이 되고 싶은 바람입니다(웃음).

Q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보내는 메시지.

이 대리 정환아, 공직자의 꿈을 꼭 이루길 응원한다. 민서야 바쁜 중에도 초심 잃지 않고 끝까지 활동해줘서 고맙다. 4기 때도 지원한다니 너의 성실함에 큰 박수를 보낸다. 모두들 고생했다. 우리 SNS에서 자주 보자!
박정환 말도 없고, 숫기도 없어서 말 걸 어주셔도 제대로 답하지 못해 죄송했어요. 끝까지 예뻐해 주시고, 어떻게든 도움 주시려는 모습이 너무 감동스러웠고 감사했습니다. 이제야 많이 친해졌는데 이젠 세 명이 같은 조가 아니라 많이 아쉽습니다. 이근주 멘토님, 다음에 만날 때는 제 꿈을 꼭 이룬 상태였으면 좋겠습니다. 꿈키움 멘토링 4기에 도전하는 민서 형은 내년에도 잘 부탁해요!
박민서 이근주 멘토님 덕분에 꿈다운 꿈을 꿀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환아! 부족한 모습이 많이 보였을 텐데 묵묵하게 잘 따라와 줘서 고마워. 우리 4기에서도 같은 조원으로 재밌게 활동하자(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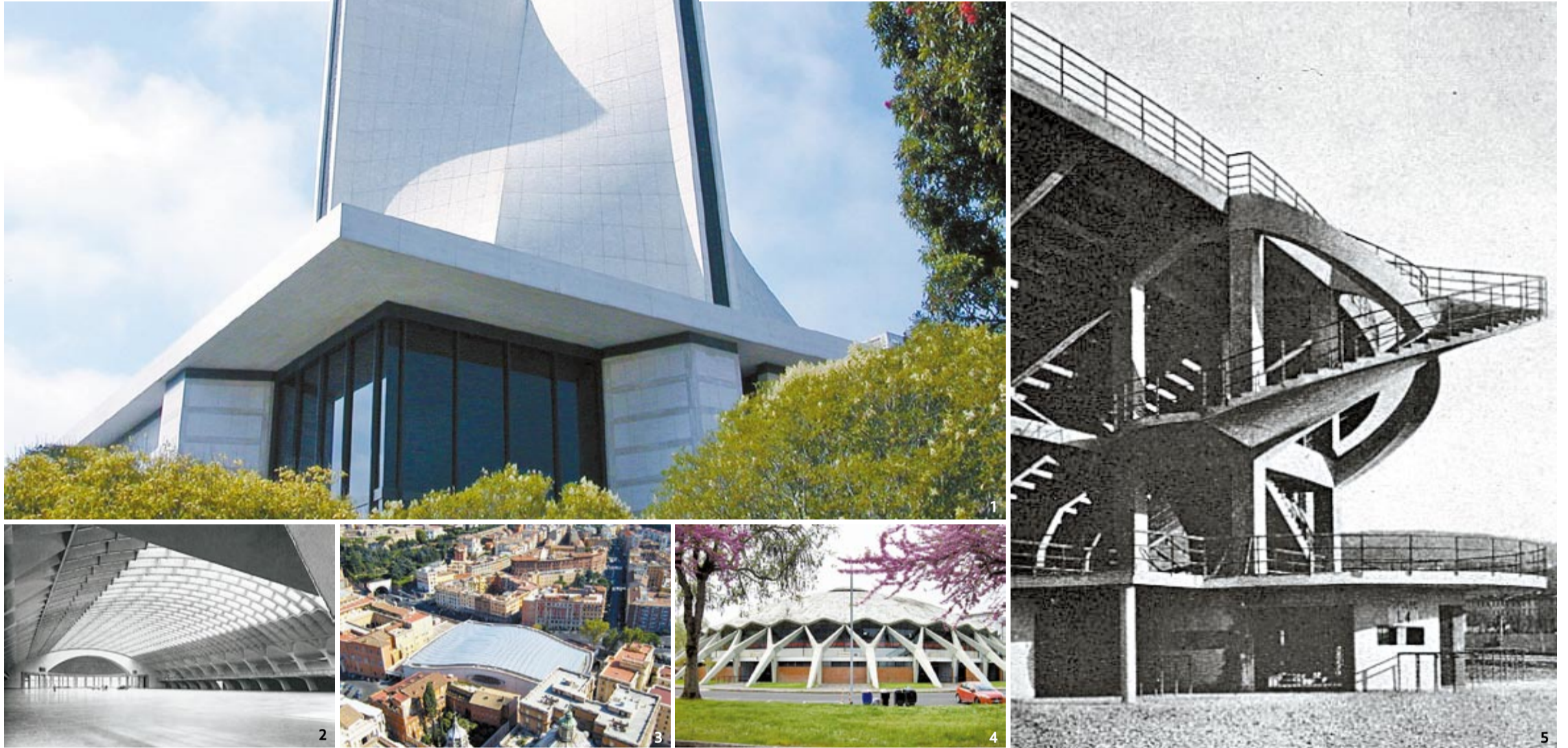
'3기 꿈키움 멘토링 봉사단' 활동 엿보기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열정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봉사단원들. 10개월간의 긍정에너지 속으로.



1 성격 유형 검사 카페를 찾은 2·7조, 2·5 현대건설 기술교육원에서 전체 연합 활동을 진행 중인 3기 단원들. 단체 사진을 찍는 사람들의 표정이 밝다. 3 인터뷰를 위해 본사를 찾은 10조. 4 10조는 1박2일 간 '나를 찾는 여행'이란 콘셉트로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 6, 7 3기 단원들이 서울 종로구 창신동 지역 주민을 위해 방한 및 벽화 작업을 진행했다. 8 1조는 토목공무원이 꿈인 멘티를 위해 별내선 복선전철 3공구 현장 방문했다. 9 스포츠 기자가 꿈인 멘티를 응원하고자 야구 관람을 하러 간 8조. 10, 11 마지막 전체 연합 활동이었던 '꿈키움 BOOK 만들기'와 '골든벨 퀴즈 대회' 진행 모습.

이탈리아의 엔지니어이자 건축가인 피에르 루이지 네르비는 이탈리아 근대건축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건축공학에 큰 업적을 남겼다. 철근과 철골, 콘크리트 구조의 공학적 합리성과 미학적 가치를 표현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HYUNDAI E&C TODAY
http://news.hdec.kr
Vol.338
2017/07/28/Friday



1 지붕이 십자가 모양인 캘리포니아의 세인트메리 대성당. ©Gndawdydiak via wikimedia 2 철골구조가 디자인 요소로 작용한 토리노 박람회 전시장. ©Mario Carrieri 3 바티칸에 위치한 바오로 6세 홀. ©Teebee via wikimedia 4 네르비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로마 실내 경기장. ©Doc Searls via wikimedia, cc-by-2.0 5 독창적인 디테일로 주목을 받았던 피렌체 경기장. 6 랜드마크로 이름을 떨친 피렐리 타워. ©https://www.flickr.com/photos/ikkoskinen via wikimedia, cc-by-2.0

철근콘크리트 구조공학의 선구자, 피에르 루이지 네르비

(1891-1979)

선구적 구조설계를 선보인 구조공학자

피에르 루이지 네르비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이탈리아의 대가로 꼽힌다. 기술적 측면뿐 아니라 당시로서는 생소한 건축 소재였던 철근콘크리트를 선형적인 재료로 취급해 대담한 구조설계를 선보여 현대건축 미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을 받는다. 또한 이를 통해 단정하면서도 화려한 건축 공간을 창조했다. 이탈리아 내의 많은 스포츠 경기장과 토리노 박람회 전시장, 이탈리아 최초의 마천루인 피렐리 타워 등 그의 작품들은 완성되자마자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렸고, 건축가와 역사가, 대중들에게까지 널리 인정 받았다. 후세의 많은 건축가에게 영감을 주었음은 물론이다.



네르비는 이탈리아 북부의 작은 마을인 손드리오에서 태어났다. 1913년 볼로냐대 공학부를 졸업하고, 1923년 로마에서 건설회사를 설립해 건축일을 시작했다.

그가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기 시작한 것은 1932년 피렌체 시립 경기장을 건축하고 난 후부터다. 피렌체 경기장은 좌석(스탠드)을 덮고 있는 지붕의 캐노피와 마라톤나 타워, 그리고 옥외 좌석으로 향하는 나선형 계단 통로 등의 독창적 요소로 주목을 받았다. 그 후로는 중부 이탈리아에 두 차례에 걸쳐 군용 항공기 격납고를 지으며 작업 영역을 넓혀갔다.

페로-시멘트 개발 혁신을 실천하다

네르비는 첫 번째 격납고를 1935년에서 1938년까지, 두 번째 격납고를 1939년에서 1942년까지 작업했다. 이 두 작업에서 그는 원숙한 기량을 발휘하면서 수십 개의 십자형 아치들이 직각으로 만나는 구조의 독특한 지붕을 선보였다. 첫 번째 것은 현장에서 타설한 철근콘크리트의 일체식 구조로 제작한 반면, 두 번째 작품은 첫 번째 격납고와 같은 구조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로 미리 제작한 트러스 부품을 조립해 시공했다. 이는 당시 기술로는 매우 참신한 시도로, 프리캐스트 공법의 대공간 건축으로는 선구적인 작품이었다. 부품을 미리 제작하면 대량 생산이 가능해 경제적이었으며 건축 기간도 단축할 수 있었다. 건물에 동일한 건축 요소들을 반복함으로써 풍부하고 섬세한 골조 표

현이 가능했으며, 리듬감도 부여할 수 있었다. 골조의 형식적 제약을 어느 정도 극복한 것이다. 2.5t을 들 수 있는 크레인만을 사용해 시공한 이 격납고는 제2차 세계대전의 폭탄 공격에도 약간만 파손됐을 뿐 고스란히 보존돼 있다.

조립 부품은 네르비가 개발하고 특허를 낸 철근콘크리트, '페로-시멘트(ferro-cement)로 만들어졌다. 이는 가는 철사로 된 철망 여러 층을 촘촘하게 겹쳐 경량의 철근을 만들고 콘크리트 함량이 많은 모르타르를 부어 제작한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2.5~5cm 두께의 소재는 압축 강도와 탄성이 아주 높아 균열에 대한 저항성도 뛰어나다. 페로-시멘트는 네르비의 작품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쓰였고, 특별한 미적 효과도 만들어냈다.

네르비의 작품들은 대부분 지붕 구조물의 내륜(內輪) 디자인에 집중돼 있다. 슬래브나 볼트와 돔 등에 선호하는 자신만의 형식을 적용하곤 했는데, 페로-시멘트 골조를 사용해야만 복잡한 곡선 또는 물결 모양의 표면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특히 그의 작품 중 유명한 토리노 박람회 전시장과 로마 실내 경기장이 대표적이다.

이 두 작품들은 모두 페로-시멘트를 사용한 섬세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유닛으로 만들어졌다. 수많은 유닛으로 형성된 곡면 구조는 빛과 음영의 반복적인 리듬을 보여준다. 로마 실내 경기장은 돔의 원리와 기능을 잘 살려서 건축 조형미를 드러낸 훌륭한 예다. Y자형 기둥이 지탱하는 돔의 끝부분에

규칙적으로 곡선이 반복되고 돔 정상에는 또 하나의 작은 돔, 큐폴라가 덮여 있다. 건물 내부의 관람석 뒤쪽으로는 전면 유리창이 둘러져 있고 지붕의 곡선 사이사이로 빛이 들어와 채광이 좋다. 토리노 박람회 전시장 공사는 공사 계획 당시부터 공사 기간과 비용 대비 효율성을 고려해 네르비의 설계안이 선정됐다. 1950년대까지 네르비는 가장 경제적으로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가장 우아한 대규모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엔지니어 중 한 명이었다.

형태와 구조, 건축과 공학, 비용과 미학을 연구하다

네르비는 독자적으로 설계부터 건축까지 작업하기도 하고, 다른 건축가들과 설계 및 구조 기술 작업을 함께 하기도 했다. 1953년부터 1958년까지 그는 마르셀 브로이어 및 베르나르 제르뤼스와 함께 설계한 파리의 유네스코 본부 건축에 매달렸다. 또한 1955년부터 1960년까지는 지조 폰티가 건축을 맡은 피렐리 타워의 골조 설계를 맡아 작업했다. 피렐리 타워는 32층 높이의 날렵한 다이아몬드형 건물로, 완공 6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련미와 우아함을 잃지 않고 있다. 당시의 건축 기술이나 한계를 뛰어넘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11m 높이의 모형을 미리 만들어 보기도 했다. 유네스코 본부와 피렐리 타워 모두 완공 즉시 국제적인 랜드마크로 주목을 받았다.

네르비의 작품 중 가장 의미 있게 여



겨지는 것은 1964년 교황 바오로 6세로부터 의뢰를 받아 1971년에 완성한 바티칸의 '바오로 6세 홀(교황 알현실)'이다. 6300석 규모의 부채

꼴 모양 건물로, 역시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졌다. 건물은 성베드로 대성당과 인접하고 미켈란젤로의 천장화가 그려진 시스티나 성당 지붕의 그림자가 닿는 위치에 있다. 이 작업에서 네르비는 교황청으로부터 역사적인 예술적 가치를 특별히 염두에 두고 작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현재 이 홀은 매주 수요일 교황의 일반 알현 시간에 성베드로 광장 대신 사용되고 있다.

네르비는 형태와 구조, 건축과 공학의 관계, 비용 윤리와 건축의 미학 사이에서 끊임없이 연구했다. 이탈리아는 물론 여러 지역에 작품을 선보였고, 세계의 디자인상 또한 휩쓸었다. 대학교수로도 헌신했다. 네르비가 작품을 통해 나타내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콘셉트는 '안정감'이었다. 네르비는 "나는 늘 안정적이며 균형감 있는 건물을 짓기 위해 나의 건축적 영감을 발휘한다. 이는 어떤 작품에도 예외가 없다"고 말했다.

건축가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 수많은 아이디어를 떠올리지만, 물리적 또는 기술적 한계 때문에 그것을 실제로 구현해내기는 힘들다. 네르비는 이러한 제약을 충분히 인지하고 다양한 연구 끝에 기발한 방법으로 제약을 극복했다. 네르비는 '예술은 단지 상상과 미학의 영역이 아니라 온전한 기능을 지닌 안정적인 실체'라는 것을 증명해냈다.

맛의시대, 맛남의시대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어느 강연에서든 이렇게 주장한다. 청중의 일부는 고개를 갸웃한다. 옛날에 먹었던 짜장면이 더 맛있었어, 짬뽕은 또 어땠다고. 닭백숙도 더 훌륭했지. 돈가스도 살살 녹았는데 말이야. 그 의미가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극히 개인적이고 단편적인 맛이다. 그 시절의 음식이 더 애정어리고 진심을 담았을 수도 있고, 더러 당대의 음식보다 훨씬 더 맛있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음식산업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가장 혀에 달고 맛의 측면에서 가장 행복한 음식을 먹고 있다는 건 사실이다. 물론 이견 여실이 기도 하다. 그저 ‘맛있게’ ‘더 싸게’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음식이 공급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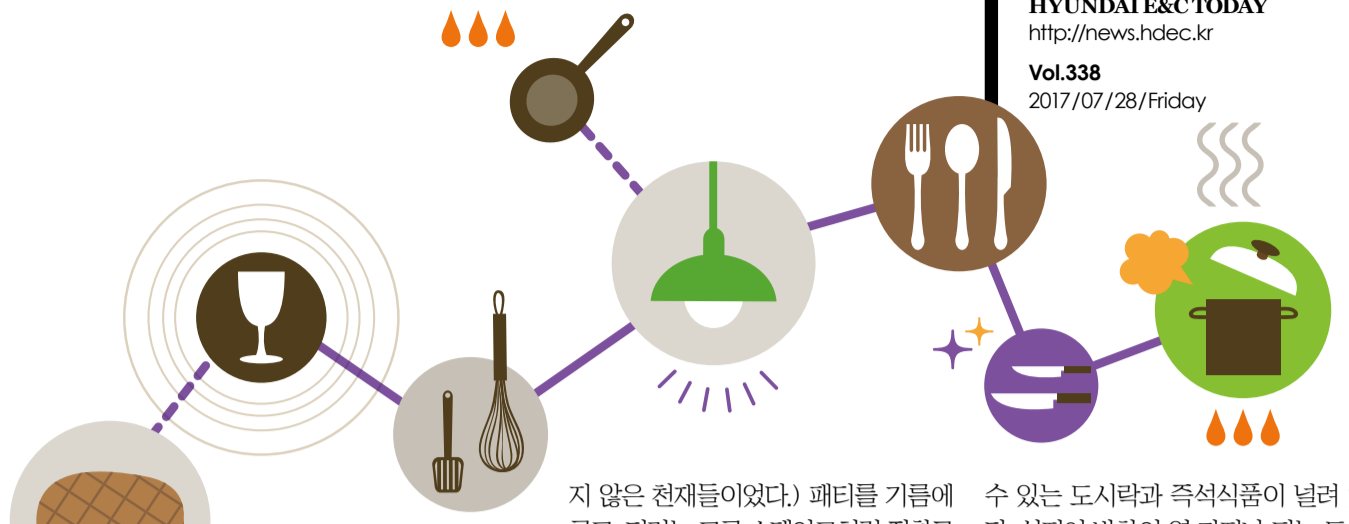
더 맛있게, 더 많은 재료를, 더 싸게 공급하는 건 현대 식품산업과 식당산업의 목표였다. 입에서 살살 녹는 스테이크는 조금 무리한다면 당장이라도 우리 입에 넣을 수 있다. 바지를 꿰고 차의 시동을 걸면 적어도 1시간 안에 미디엄 레어로 익힌 스테이크가 우리 앞에 당도한다. 이런 수준의 스테이크는 1960년대나 70년대라면 『미쉐린 가이드』의 본고장 프랑스 파리라고 하더라도, 스테이크의 자존심, 미국 뉴욕에서도 어렵도 없는 일이었다. 게다가 그런

멋진 음식을 내는 가게를 인터넷 검색으로 5분 안에 예약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말이다. 과거 서구 사회는 2차 세계대전 중에 배급받은 형편 없는 베이컨 몇 조각과 미국인이 만들어 공급한 토마토수프, 미트볼 캔으로 연명했다. 지옥 같은 전쟁 시기를 보냈다. 농부들은 상당수가 전쟁터에서 죽었다. 비록 몇 년 전에 만들어둔 삼페인은 있었지만, 그것에 걸들인 음식은 형편없었다. 농토는 파괴됐고, 치즈 생산업자는 군대에서 전사했다. 스테이크를 불에 잘 지져서 최상의 맛으로 만드는 공식은 몇몇 요리사만 구사하는 비밀 기술이었다.

이제 한국 종로에서 일하는 스물 몇 살짜리 3년 차 요리사도 유튜브를 보고 스테이크를 제대로 굽는 법을 익힐 수 있고, 가스 대신 숯불로 구우면 고기가 더 맛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며, 스마트폰을 열고 동료 선배에게 궁금증을 물어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다.

“선배, 양갈비를 굽기 몇 분 전에 양념하는 게 더 유리하죠? 구울 때 세로로 세워 갈빗살이 통통하게 보이게 하라고요?”

초보 요리사도 섭씨 63도의 따뜻한 물에 양갈비를 담가 열 시



간쯤 익히면 고기가 부드러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2000년대 초반의 밀라노와 파리의 일급 요리사들도 모르던 사실이었다. 그들은 그저 가장 좋은 고기를 사들이는 루트를 독점하고 있었을 뿐 저급한 양고기를 멋지게 변모시킬 기량은 없었던 것이다. 물론 그럴 필요가 없기도 했다. 금융으로 돈을 번 신흥부자들이 언제든 생후 3개월짜리 젓도 안 났 어린 양의 갈비를 먹고 100달러를 지불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 고기를 공급하는 업자들은 언제나 주문에 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미각이 지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미각이 지칠 만큼 맛있는 것들을 입에 넣고 우물우물 씹고 있다. 햄버거는 전통 가정의 레시피에 따라 미트볼을 만드는 가난한 이탈리아계 가정주부의 손아귀에서 그 고기를 빼어냈다. 햄버거 회사는 스테이크도 안 되고, 싸구려 미트볼이나 만들 그런 고기를 그러모아 스테이크처럼 보이는 패티를 탄생시켰다. (패티! 귀엽지 않은가. 그걸 ‘고기의 최후 종착지’라고 이름 짓

지 않은 천재들이었다.) 패티를 기름에 굽고, 더러는 고급 스테이크처럼 적회로 지글지글 지져서 부푼 빵에 끼워 넣어 우리 입에 넣어준다. 단돈 5달러도 받지 않고, 온갖 양념을 배합해 옛날 최악의 부위로 요리하던 수고를 잊게 해줬다. 그것은 혁명이었다. 우리는 대량으로 기르고, 최고급 부위와 최저급 부위를 모두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세상에 살게 됐다. 햄버거를 씹어보라. 심지어 그 돈 많은 회사들은 상추도 한 장 넣어주고 얇게 저민 ‘농장’ 토마토도 끼워준다. 그러고는 말한다.

“우리 회사 햄버거는 영양적으로 아주 균형이 완벽하죠. 기름 쪽 뺀 단백질 중심의 건강하고 맛있는 패티에 천연 재배한 가든 레터스도 넣어드립니다. 태양의 선물 토마토도 까짓 선심을 쓰지

요. 고객의 건강을 위해서요.”

그 햄버거를 목구멍으로 넘기기 위해 콜라를 마셔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말하지 않는다. 물론 누가 물어본다면 기뻐했다는 듯이 대답할 것이다.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오렌지주스나 미네랄워터에 햄버거를 드실 수도 있어요. 콜라를 고르는 건 쾌락이지요. 우리는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햄버거 회사가 사람의 마음까지 통제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요.”

우리는 만약 얼마든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건 사실이다. 편의점에 가면 우리의 미각을 완벽하게 속일 수 있는 도시락과 즉석식품이 널려 있다. 심지어 반찬이 열 가지나 되는 도시락이 3900원에 팔린다. 우리는 그 도시락을 사 들고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며 즐거운 식사를 하는 대신 집으로 향한다. TV에는 맛있는 음식을 찢쩍대며 먹는 프로그램이 어느 채널에나 나온다. 넷을 놓고 TV를 보다가 허기가 몰려오면 도시락 뚜껑을 연다. 도시락을 사오지 않았다면 배달 앱을 가동시켜 치킨을 주문한다.

진정으로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다. 빅데이터와 시뮬레이션으로 소비 대상이 가장 맛있어 하는 포인트를 찾아내는 세상이니까. 왜 아니겠는가. 정중한 집사가 서비스하는 한 기 100만원짜리 음식과 편의점에서 집어 드는 간편식품이 공존하는 시대, 우리는 다시 맛을 찾는다. 조금만 기다리시라. 우리 어머니들의 손맛을 재현하는 프로그램도 얼마든지 가동될 것이다. 남북통일은 못 해도 양념 비법 간장으로 전 국민의 음식 맛을 통일시킨 나라이니까. 나는 다시 말한다. 우리는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

박찬일

음식 칼럼니스트

※ 본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글/그림=웹툰작가 손하기

패션 사진과 영화의 관계를 새롭게 재해석한 전시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보그 라이크 어 페인팅展>은 세계적인 패션 매거진 <보그(Vogue)>의 아카이브에서 엄선한 작품들을 모은 전시로, 고전 회화를 색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HYUNDAIE&CTODAY
http://news.hdec.kr
Vol.338
2017/07/28/Friday

사 진 과 명 화 이 야 기
보그 라이크 어 페인팅展



5



2



6

2017.6.24~10.7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3층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예술의전당 | 02-580-1300



1



7



3

1 Mert Alas & Marcus Piggott_Ophelia, Hever Castle, Kent, 2011_© Mert Alas and Marcus Piggott 2 Tim Walker_Lily Cole on Spiral Staircase, Whadwan, Gujarat, India, 2005_© Tim Walker 3 Cecil Beaton_Charles James gowns French & Company, 1948_© Condé Nast Archive 4 Paolo Roversi_Hwang Jin Yi in Paris, 2007_© Paolo Roversi 5 Patrick Demarchelier_Swept Away, 2011_© Patrick Demarchelier 6 Jang Hyun Hong_Tilda in Seoul, 2015_© Jang Hyun Hong 7 Tim Walker_Stella Tennant, Eglington Hall, Northumberland, 2007_© Tim Walker



4

올해로 창간 125주년을 맞은 <보그>는 전 세계 22개국에 출판되는 명실상부 최고의 패션 매거진이다. <보그>는 패션계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포토그래퍼, 일러스트레이터, 아트 디렉터들을 기용해 매달 최고의 잡지를 만들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보그 라이크 어 페인팅展>이라는 전시가 탄생할 수 있었다.

이번 전시는 패션 사진과 영화의 관계를 새롭게 탐구하며, 패션산업이 가진 상업성과 고전 영화의 예술성을 자유롭게 넘나든다. 페르메이르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를 비롯해 카라바조, 르누아르, 고흐, 달리, 클림트 등과 같은 화가들의 걸작이 패션으로 재해석됐다. 큐레이터인 <보그 스페인>의 데브라 스미스는 “이번 전시를 위해 125년간 전 세계 <보그> 아카이브가 보관해 온 작품 중 100여 점의 이미지를 엄선했다. 한국 관객들이 이번 전시를 통해 <보그> 속에 스며든 세계 미술사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전시를 여는 포부를 밝혔다. <보그 라이크 어 페인팅展>은 2015년 스페인 마드리드 티센-보르네미차 미술관(Museo Thyssen-Bornemisza)에서 처음 개최돼 3개월간 38만 명이 관람했으며, 당시 큰 화제가 됐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한국 전시는 <보그 코리아> 작품 20점과 스페인에서 선보이지 않았던 작품 40여 점이 새롭게 추가됐다. 동서양의 미학과 패션을 접목시킨 세계 최대 규모의 이번 전시는 10월 7일까지 열린다.